



코로나19 확산 차단 시민의식에 달렸다

서울 거주자 2명 제주여행 후 잇따라 확진 판정
공·향만 발열검사, 열 없는 무증상자엔 무용지물
도 “확진자와 관련 있으면 스스로 검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제주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12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국내 전 공항의 국내선 출발장에서도 발열검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2명이 제주를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

간지 사흘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운영한데 이어 지난달 2일부터는 국내선 도착장과 항만으로도 확대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항공사와의 협의 아래 대구공항에서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출발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도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구로 콜센터 사례 외에도 제주 4번 확진자(46)와 열을 동안 지낸 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도 제주공항을 이용했지만 발열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구로구 센터 직원 2명은 제주에 입·출도 당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로 추정된다”며 “이런 무증상자에 대한 방역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열검사 실효성에 대해서는 “발열 검사에서 고열자를 파악해도 비행기를 못타게 하는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열 검사로 코로나19 유증상자 50%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고열자가 확인되면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까지 제주 공·향만에서 총 1511명의 열감지가 확인됐다. 이중 대부분은 체온 재측정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측정에서도 발열을 보인 24명 중 17명은 단순발열로 귀가했다. 나머지 7명은 코로나19 검사까지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송은범기자**

가짜 보건용마스크 7만장 유통 2명 입건

일반용 구입후 서류 조작
전국 18개 마트에 판매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킨 유통업자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4)씨와 B(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뒤 이중 7만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 17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기도 용인에서 유통업을 하는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마스크 7만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판매해 2114만원의 부당



압수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

이익을 챙겼다. 18개 마트 가운데 제주 소재 마트는 3개소에 나타났으며, 개당 2800원~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도내 마트에서 일반용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또 판매 당시 해당 마스크들은 ‘KF 마크’도 없이 오직 허위 시험 성적서 등을 붙여놓는 방식으로 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seeb1119@ihalla.com**

마스크 판매사기 3명 법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마스크 사기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A(32)씨와 B(37)씨, 우리나라 국적의 C(3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중국인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기자**

B씨는 2월 17일 “마스크 1만개를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2만위안(한화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던 혐의를, C씨는 중국 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지난 2월 10일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재공모 ‘시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대 이사장 선발을 위한 재공모에 나선다. 제주문화재단은 별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 2명을 추려 지난 3일 제주도에 추천했지만 10일 ‘이사장 후보 재추천’ 요청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문예재단은 앞서 9대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사임하자 차기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모를 벌였다. 전국 공모를 통해 15명이 몰렸고 관련 규정에 따라 2명의 후보를 압축해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게 보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재

추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이사장 재공모와 관련 제주 민예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약 제주도지사의 측근 인사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라면 ‘문화예술섬 제주’라는 제주도정의 문화예술정책은 그야말로 위선”이라며 “제주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역문화 예술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측근 인사를 기어코 이사장으로 선출하려 한다면 그것은 제주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문화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어르신들에게 보낼 구호품 세트 12일 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적십자사 봉사원과 RCY단원 100명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구호품 3000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성판악휴게소 42년만에 철거된다

대법원, 토지인도 소송 정부 승소 최종 판결

1978년 한라산 성판악 코스 입구에 지어진 성판악휴게소가 42년만에 철거된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였던 A씨(사망)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라산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지어진 것으로 원래는 B씨의 소유였

다. 당시 B씨는 국유림 998㎡를 임대해 연면적 498㎡, 2층 규모로 휴게소를 지었다. 이때부터 B씨는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해 휴게소를 운영해왔다. 휴게소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간 시기는 1999년 12월이다. 그러나 국유림법에 따라 더 이상 휴게소 운영 목적으로는 대부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2009년 휴게소를 제주도에

에 기부채납하고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매점 등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마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는 2012년 11월 A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또 제주도는 A씨가 낸 매점 사용 허가 신청도 거부했다. A씨는 성판악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부는성판악 휴게소를 철거하기 위해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도 최종 승소했다. **이상민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샅춘돌 훈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수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평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